전법 일기

열심히 정진한 부처님法 교법사로서 회향이 목표

정식 교법사로서의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다. 일반 중·고교 도덕·윤리 교사 9년, 미국 한인 사찰 국제포교사 2년, 사찰 종무원 5개월 경험 덕분인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은 없었다. 다만 교법사라는 자리가 전법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낼 것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는 법사이고, 또 학생들 포교와 교직원 전법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학원 수석법사님과 108명 불교학생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체험 활동을 다방면에서 펼친다. 매일 오전 8시 35분 학생들과 아침예불을 올리고, 매주 목요일엔 불교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한다. 매 1교시 수업 시작할 땐 '마음의 산책(선정의 시간)'을 통해 전교생이 5분간 명상을 한다.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발우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는 '빈그릇 운동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과는 일요일 봉선사에서 '청년연합법회'에 참석한다. 이 밖에도 1년에 두 번 '불교문화체험전'과 또 '다도체험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불교의 문화를 접하고 불교와 친해지고 거부감이 없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포교를 하고 있다.

올해 초 한 학생이 찾아왔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롤모델로 여겼던 남학생이다. 그 학생은 불교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내 도덕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불교를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진학 목표도 동국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장문의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법사님 덕에 1년간 행복했습니다. 불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법사님은 아라한이 되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열어 읽어보았고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학생은 거의 A4 용지 한 장이나 되는 분량의 내용을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나에게 건넨 것이다. 편지에는 내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과 자신의 삶에서의 좋은 의미를 알게 되었고, 매일 같이 불경을 읽고 108배와 염불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행 생활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편지 마지막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랬다.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지금까지 정진한 부처님의 법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부처님에게 입은 은혜를 세상에 회향하는 것 말이다.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을 만드시고 하신 전법선언이 다시금 떠오른다. 행복과 이익을 위해 자비심을 가지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오늘도 나와 남 모두가 부처님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나 역시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 있는 교법사로서 불교 공부와 회향(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여법하게 해나가길 다시금 서원한다.



손범준 광동중 교법사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⑤ 사춘기의 이해(2)

사춘기 왔다고요? 이젠 놓아줄 때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과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의 '짜증, 적대시, 욕설, 친구 중요시, 과한 타인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알면 사라지는 것이다. 영화 〈실미도〉를 보면 납치되는 버스에서 아이가 떼를 쓰며 울자 엄마가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한 납치범이 엄마를 쏘아붙이며 말한다. "아줌마, 애들은 원래 우는 거예요!" 그렇다. 애들은 원래 우는 건데, 안 그러길 바라는 엄마만 자꾸 부아가 치민다.

뇌과학적으로도 사춘기는 뇌의 전면 개보수가 이뤄지는 시기다. '감정, 정서, 충동, 동기'를 담당하는 변연계가 전두엽보다 먼저 완공되고, '자기인식, 정보통합, 계획판단,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뉴런·시냅스 가지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뇌발달의 '우선순위'와 '과도기'로 위 같은 사춘기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사춘기는 가장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유 없는 반항' '질풍노도'의 원인인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소화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무의식적 내용들이 새로운 자아 이미지와 함께 재구성되고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은 이 과업의 본보기가 될 만한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 나선다.

이때 부모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사춘기 왔다면 부모는 '언행일치' 보이길

배우자 험담, 아이 통한 대리만족은 '엄금'

부모는 성장 인정하고 '따뜻한 난로' 돼야

첫째, '언행일치'다. 아이들은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부모로서의 권위가 살아난다. 본인은 틈날 때마다 휴대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휴대폰 그만 보고 공부하라는 것은 자신을 무시해달라고 애원하는 일이다.

둘째, '배우자 욕하지 않기'이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두 개의 하늘이다. 부부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아이에게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서로 싸우고 험담하는 자체로 아이는 큰 상처를 받는다.

셋째, '아이를 자신의 대리만족으로 삼지 않기'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를 통해 대신 하려는 부모가 많다. 부모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아이는 하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삶이 짐짝처럼 느껴질 뿐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를 품에서 놓아줄 때가 온 것이다. 이제 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독립을 인정하고 '따뜻한 난로'가 되어야 한다. 따뜻한 난로란 아이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요, '집착'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 부모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한다. 정작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괴로움, 부모의 소중한 것을 거절한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따뜻한 난로는 억지로 아이를 쫓아다니며 간섭하지 않고, 불 꺼진 난로처럼 방임하지도 않는다. 언제든 아이들이 원할 때 따뜻한 온기를 쬘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 온기의 힘으로 든든하게 자신만의 먼 길을 떠날 수 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부모의 수행이 필요한 이유다. 곧 아이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되돌아올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불교무용대전에 관심을

불교무용예술의 활성화와 문화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불교무용대전'이 올해 10회를 맞았다. '1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재정에서나 인식에서나 열악한 불교문화예술 분야, 특히 무용으로 꾸준히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국제대회로 발돋움한 것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승무와 바라춤, 나비춤, 법고무 등 불교무용 분야는 한국무용예술계를 이끌어온 중요한 자산이지만 음악과 미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개인적 원력에 의해 전승·창작돼 왔다. 불교무용대전도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의 문화포교 원력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예술적 시각에서 계승·보존·발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최로 개최돼왔다. 그러나 몇 해 후 불교무용대전은 주최가 다시 구슬주머니로 변경됐다. 예산과 홍보 등 지원이 준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순리였다.

쉽지 않은 운영에도 이철진 대표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5월 29일 성균소극장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만난 이철진 대표는 "대표님 부자세요"라는 짓궂은 기자의 질문에 박장대소하며 "열정과 불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이어온 불교무용문화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내려 놓을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시대상이 담긴 불교예술은 그 자체로 포교의 아이콘이자 과거의 전승, 현재의 기록, 나아가 불교의 미래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대중들이 불교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예술 영역이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시기의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6월 한 달은 불교무용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불교무용의 발전을 이루고 대중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가만이 아닌 불자 모두의 임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